

# ‘빛자루병’ 왕벚나무 보호구역 턱 밑까지...

### 5·16도로변 심어진 왕벚나무 상당수 발병 천연기념물인 자생지 위협... 긴급방제 필요

제주시 봉개동 5·16도로변에 심어진 왕벚나무에서 빛자루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인근의 제주왕벚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159호)까지 위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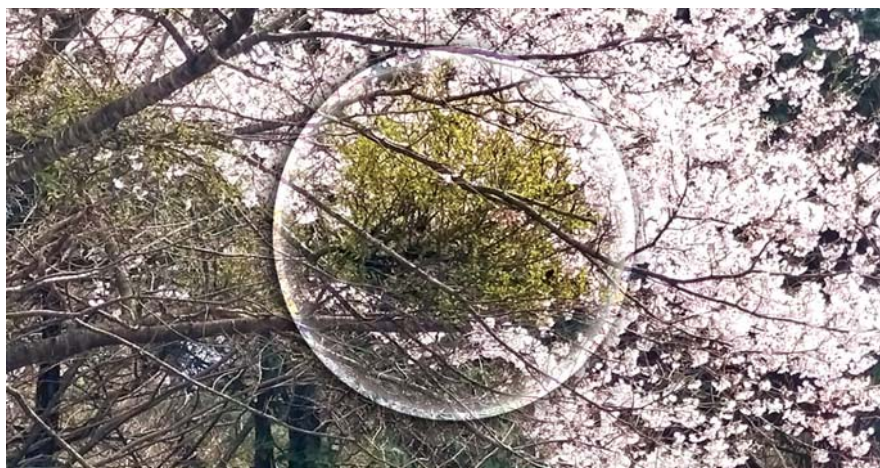
지난 29일 찾은 제주시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일대, 자생지 입구 쪽 양 도로변에 심어진 왕벚나무 대다수는 봄 기운을 비껴간 듯 꽃을 피우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다. 간간히 꽃을 피운 왕벚나무도 발견됐지만 이마저도 제모습은 아니

다. 나무의 일부 가지가 서로 뭉쳐, 꽃은 피우지 못하고 잎만 도드라지게 자라고 있다. 전형적인 빛자루병 감염 증상이다.

빛자루병은 곰팡이균의 일종인 타프리카(Taphrina)균에 의해 수령이 오래되거나 수세가 약해진 나무에서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이 병에 감염되면 기형으로 돌아간 가지들이 빛자루처럼 쪼그라들다가 10~20년이 지나면 말라죽는다. 빛자루병에 감염된 왕벚나무들은 천연기념물 제159호로 지정돼 보호받는 왕벚나무 두 그루와 직선거리로 불과 200~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빛자루병의 원인균인 곰팡이 포자는 공기를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지정 보호수인 왕벚나무로까지 병이 번질 우려가 있다.

세계유산본부 국립나무병원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면 빛자루병 곰팡이 포자는 수백미터까지 날아간다”면서 “하루 빨리 감염목에 대한 방제를 시작해 왕벚나무 자생지 일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빛자루병에 감염(원인)된 벚나무가지가 꽃을 피우지 못한채 앙상한 모습이다.

30일 왕벚나무 자생지 일대에서는 현장 조사를 벌여 입구 쪽 5·16도로변에 심어진 왕벚나무 상당수에서 빛자루병이 발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5·16도로변에 심어진 왕벚나무들은 가로수 조성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심어지기 시작해 현재 그 수가 약 270그루에 이르고 있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다행히 빛자루병이 왕벚나무 자생지까지 번지는 않은 상태”라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생지 일대는 세계유산본부가, 입구 쪽 등 도로변에 심어진 왕벚나무들은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30일)

관리주체인 시에 긴급 방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빛자루병을 방제하려면 병든 가지를 잘라내 불태우고, 자른 부위에 약제를 발라야 한다”면서 “정확히 몇그루가 감염됐는지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방제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주로 벚나무류를 중심으로 빛자루병이 발병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에는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성관약 구간에 심어진 500여그루의 왕벚나무 중 40%가 빛자루병에 감염돼 대대적인 방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상민기자

# LNG 쓰면 요금 얼마나 될까

### 가정용은 월 2261원·영업용은 13만원 ↓

제주에 공급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020년 2차 물가대책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정안에 따라 요금을 산정해 보면 가정용은 현행 월 평균 5만 3292원에서 5만1031원으로, 영업용은 201만8144원에서 188만994원, 공조 냉방용은 1000만3260원에서 964만9222원, 공조 냉방용은 59만 6158원에서 41만6273원 등으로 각각 요금이 내려간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 요금은 1365.25원에서 78.51원 감소한 1286.74원으로, 원료비는 1090.18원

에서 893.27원으로 196.91원 줄었다. 기본요금은 주택용 750원·영업용 1800원으로 동결됐다.

반면 평균 공급비용은 275.07원에서 393.47원으로 118.40원(43%) 늘었는데, 이는 LNG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LNG가 보급되고 있는 2만7000세대는 인하된 금액으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공급지역은 ▷일도2동 690세대 ▷이도2동 2486세대 ▷화북동 2232세대 ▷삼양동 4128세대 ▷아라동 1348세대 ▷오라동 865세대 ▷연동 6351세대 ▷노형동 8953세대 등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제주도는 노동자 생존권 보장 정책 수립·시행하라”

민중노총 제주본부 30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연일 경

제위기 대응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노동력을 팔아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도권 밖에서 배제돼 온 노동자들의 피해는 가능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으로, 코로나19를 빌미로 사실상 정리해고인 권고사직이 강요되고 불법적인 강제 무급휴직 다반사 됐다”고 지적했다. 이상민기자

## 도, 美유학생 모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접수 원 지사 “얹체 짓 없어야”

4박 5일간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미국 유학생 모녀가 방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제주도와 피해를 입은 업체 4곳이다. 금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업체 4곳 2203만원 등 총 1억3203만원이다.

소장 접수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제주 곳곳을 돌아다녀 자가격리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얹체 짓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으로 강력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장 접수 이후에도 자가격리자 등 추가로 피해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녀 옹호 발언을 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는 “발언들도 모두 재판에 사용되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만날 상대”라고 답변했다.



제주도관계자가 제주지법앞에서 소장을 들어보고 있다.

한편 30일 제주도는 제주 7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단 이탈한 A(47)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잇따른 개학연기 교육현장 불안감 가중

### 도교육청 어제 온라인 공감회의 ‘온라인 개학’ 부작용 목소리 비등 “맞벌이인데 아이들 지도 어렵다”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을 맞게 됐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개학에 교육 현장의 불안이 풀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선부른 개학은 무리라는 여론 속에 그 대안으로 ‘온라인 개학’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 교육 당국의 최종 결정과 후속 대책에 관심이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30일 유튜브로 생중계한 ‘코로나19 대응 신학기 준비 온라인 공감회의’에선 개학 연기로 인한 우려와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200여명은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쏟아내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그중에는 예정대로 4월 6일 개학 여부를 묻는 질문이 단연 많았다. 실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질지에 대한 물음도 이어졌다. 교육부가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도교육청 측은 “하루 이틀 내에 교육부가 적절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는 말

로 답변을 대신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컸다.

주된 이유는 온라인 개학으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겐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아이디 교회\*),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소외 가정은 어렵하 나”(an\*) 등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 학원 의존도가 커져 되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개학 연기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개학 이후에 대한 걱정도 이어졌다. 학교 내 방역물품 확보 여부를 묻거나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교사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개학 연기로 전화 상담을 하고 있지만 학생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되는 상황) 뉴스로 접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매일 알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코로나19 대응 각급 학교 현장 조치 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댓글을 보니 학교 현장, 학부모의 걱정을 알겠다”며 “학교 현장에 매뉴얼을 내려보내기 전에 이를 검증하고 전문가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시농협

# 진심의 손에서 안심의 손까지

농업인에게 든든함을! 소비자에게 건강함을!

진심의 손으로 키워온 농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가 진심과 안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하나로마트 제주점 729-1551    식재료매장 729-1624    하나로마트 오라점 747-6260    하나로마트 노형점 750-6500